

# 건강하고 자유로운 집을 위한 주택 설계 / 중암을 중심으로

Design for a Healthy and Free House/Based on the works of Jungam

김개천  
국민대학교

Kim Kai-chun  
Kookmin University

• key words : Jungam House, Free & Health, Circulations of Chi(氣)

## (요 약)

몸을 건강하게 하고 정신을 자유롭게 하는 집이란 디자인 기능의 효율성과 물리적 합리성의 측면을 넘어 인간의 육체와 정신에 관계되는 커뮤니케이션과 몸의 근본이라고 하는 기(氣)의 순환을 고려한 집으로서 사람을 활(活)하게 할 수 있는 집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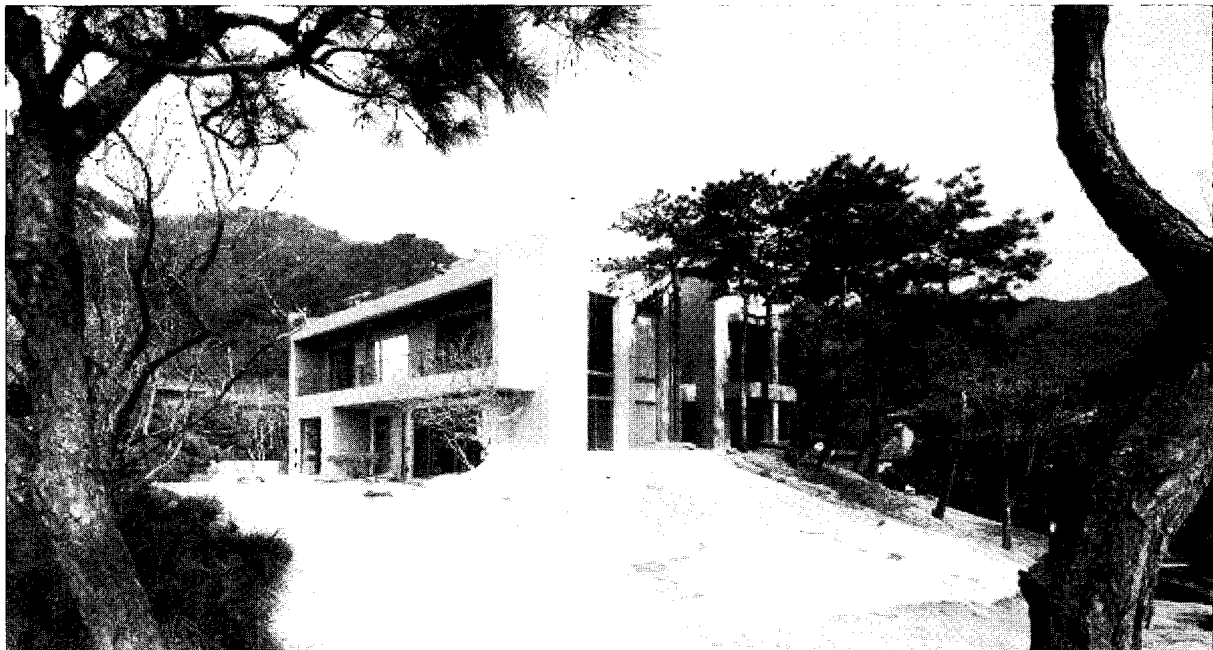
한옥에서의 집이란 인간의 행위와 감정 및 이성의 모든 정신을 담는 형태가 없는 가변적 형태이며, 다양한 삶의 행위들을 이끌어 스스로의 삶을 생성하고 창출해 나가는 통합된 전체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양인에게 좋은 집이란 몸을 편리하게 하기보다는 건강하게 하는 기능을 가져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운동하며 기를 생성하여 통하게 하는 생명과 같은 역할을 해야 했다.

본 논문은 인간에 대해 거주공간이 건강한 육체와 자유로운 정신의 공간으로 실천되기 위하여 기(氣)의 순환을 중심으로 고려한 주택 설계안을 연구한 것이다. 이에 기(氣)를 정신과 육체의 두 가지 측면으로 보고 이들의 순환을 이루는 집이 인간의 삶 속에서 생명을 가진 것처럼 기운생동(氣運生動)하게 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설계된 중암의 설계 과정을 사례로 제시 한다.

## (Abstract)

A house in the traditional Korean living had a shape without shape containing all the acts, emotions, and reason of a human being and was an integrated whole creating a life by involving in all the diverse acts. In this vein, a good house for the Asian people should function to make the residents healthy rather than comfortable and have its own life constantly changing, exercising, and creating and circulating ch'i(氣).

This study presents a house design plan with the focus on the circulation of ch'i(氣) in order to create a space for a healthy body and free spirit. By approaching ch'i from the two aspects of spirit and body, the ways were examined to make a house be full of ch'i and breathe itself as if it were alive along with humans. And the case of Jungam's design process was illustrated.



[사진 1] 중암의 외관 형태지향적 의도가 결여된 사각형의 직선을 사용하였으나 좌우와 앞뒤로 분할되고 통하게 하여 막혀있는 듯 열려있는 구조로 기를 상호 관입하려 하였다.

## 1. 디자인 배경

관자는 우주에 중심이 아닌 곳이 없다 하였다. 건축이 자연의 중심에 있다면, 건축만이 주체가 아니라 주체를 둘러싼 환경은 모두 건축이 된다. 건축적 환경이나 자연적 환경 모두가 인간에게 있어서 동등하듯 동양의 집은 구축적 조직화(fabrication)보다는 자연도 구축의 한 부분으로 인공과 자연 그리고 인간이 함께 교감을 일으키는 장을 제공하기 위해 통합화된 하나의 체계(organization)의 우주적 공간으로 열려있었다. 그와 함께 미적 형태와 삶의 텍스트가 하나이면서 건축 자체가 사용이나 관찰자 모두에게 각각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와 잠재적 모습을 가졌다. 즉 건축이 삶 속에서 충실히 본연적으로 기능하는 도구적 역할을 하면서도 건축 스스로도 생명을 가진 기운생동(氣運生動)하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에 본 논문은 자연의 중심에 위치하여 인간의 몸과 정신을 활(浩)하게 하려 했던 한국전통의 주택이 가지는 기(氣)의 순환에 대한 방법과 의의를 참고하여 건강하고 자유로운 집을 설계하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다.

한국 전통의 집은 인간과 자연과 건축을 시공간적으로 통합한 가변적 형태로서 인간의 행위와 감정 및 이성의 모든 정신을 담는 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기거와 침식의 생활공간, 독서와 접대의 문화공간, 예술과 문필 활동 그리고 의례와 교육 공간 등의 다양한 삶의 행위들을 이끌어 삶을 활기차게 생성하고 창출해 나가는 통합된 구조였다. 그러기에 좋은 집이란 정신을 자유롭게 하는 동시에 육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기능을 가져야 했다. 육체와 정신의 근원적 형식으로 기(氣)를 보았으며 그 기(氣)는 생명의 근원으로 정신적·물질적 의미의 양쪽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氣)를 정신의 자유로움과 육체적 건강의 순환에 대한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여 사람을 건강하고 편안하게 하는 집을 설계해 보았다. 이러한 개념을 적용한 사례로 서울시 성북구 평창동에 위치한 중암(中庵)의 설계과정을 육체와 정신을 위한 기의 소통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밝힌다.

## 2. 디자인 컨셉

### 2-1 자유로운 정신의 집

집은 작게는 그곳에 사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다루는 일이며 나아가 자연과의 소통이며 인간 삶의 기록이다. 집이 거주자와 공간적으로 진정된 접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삶을 이끌며 함께하는 방식으로 공간의 차원이 끌어올려져야 한다. 한국 전통의 집은 자연이 공간 외부에 존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을 넘어서 주택 내부의 내재적 요소로 자리하며 나아가 인간 내부의 심경(心境)으로 까지 위치하는 역할을 하여 자유로운 정신을 고양하였다.

이때 자연은 건축적 장치에 의해 인간과 상관관계를 갖게 된 자연으로 단순한 배경적 역할을 넘어 기능하는 자연이 된다. 집의 구조가 자연을 차경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인간의 몸과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데 있어 자연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한다.

자연이란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노장의 도가(道家) 사상에

서는 자연이란 “어떤 주재자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속에 내재하는 작용력으로 스스로 그렇게 된다.” 고 말한다. 장자의 제물론 머리 부분에서 ‘하늘의 소리’를 말하는 원문에 대하여 “모두 스스로 취하는 것이니 소리 나게 주재하는 자가 따로 있겠는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sup>1)</sup> 조선 조 유학에서는 자연(自然)은 ‘저절로 그러하다’는 의미까지 포함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육체와 정신의 가장 생명적인 상태는 스스로 혹은 저절로 그러한 자율적 상태이다. 이와 같이 노장에 밝힌 자연의 개념을 자유로운 정신의 집의 개념으로 하여 육체와 마음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끊임없이 적조하고 고요해야 하는 집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마음이 허한 상태를 극치에 이르게 하고 고요함을 지키기를 독실하게 한다. 만물이 함께 일어나도 나는 그것으로써 돌아가는 것을 본다. 뿌리로 돌아가는 것을 고요함이라 한다. 이것을 일러 천도(命)로 되돌아간다.” 고 하였다. 적조와 고요의 건축은 빈 공간이자 허의 장소로 보이지 않는 비어있는 구조를 가진다. 이것은 도(道)를 체득한 경지로 도를 체득함에 도를 잊어버리듯이 건축 안에서 건축이라는 것을 잊은 상태이다. 그리하여 편안하면서도 건축적 기능의 세부적 측면을 잊어버리고 공간적 즐거움만이 향유되는 알 수 없는 건축이 되어버린 경지이다. 그것은 디자인을 잊은 인간과 자연이,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서로 관계를 맺는 자연스러운 자유로움이다.

### 2 - 2 건강한 육체의 집

육체의 근원인 기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4계절이 끊임없이 순환하는 질서의 체계 속에서 변화하듯 기(氣) 역시 질서 속에 변화하는 체계가 될 때 생성되며 이러한 기로 이룩된 육체는 건강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노자를 비롯한 동양의 많은 철학자들은 눈을 위한 볼 수 있는 형식이 아니라 몸을 건강하게 하는 활신(活身)하는 일이 아름다운 것이라 했다. 동양의 철학은 특히 인체를 중시하여 몸과 정신, 미와 실용을 따로 생각하지 않았다. 집또한 끊임없이 변화하고 운동하여 몸과 정신의 근원적 형식인 기를 생성하고 흐르게 하여 생명의 기운이 가득 찬 집이 되어야 했다. 반복과 변화는 생명의 동력이자 변화를 생성하고 촉진시키는 방법이었다. 공간의 자생적 유동과 빛과 공기의 순환 그리고 집과 거주자가 상호 관계하여 거주자의 운동이 유발되게 하였다. 즉 자연의 원리처럼 변화하고 순환하는 구조의 집이어야 하고 그러한 집이어야 하고 그러한 집은 흉하지 않고 장구(長久)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천도로 되돌아 가야하는 운동변화의 반복성<sup>2)</sup>은 영역이 있되 영역과 경계를 한정할 수 없는 모호하면서도 이어지는 영역으로 존재해야 됨을 말한다. 영역을 한정하여 인간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경계의 구조에서 더 나아가 자연과 인간, 그리고 공간이 무영역의 모호함으로 관계맺음으로써 시·공간으로 무한한 공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한정된 모습과 고정된 실체로서의 건축이 아닌 공계(空界)의 모습으로, 실체가 있으나 변화하며 이어지는 무시무공의 상대적 무한 공간을 말한다. 대상은 다른 무엇과 관계하고 변화하므로 하나의 형상과 크기를 추구하지 않는다. 천변만화하는 모호한 경

1) 「동양철학의 자연과 인간」 안병주 P 3 아세아 문화사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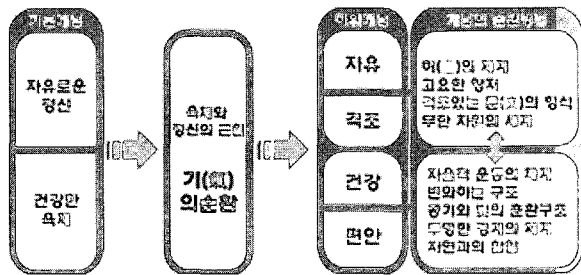
2) 「노자의 자연관」 조문환 P66 아세아 문화사 1998

계는 절대적이 아닌 관계적으로 변화하고 합하여지는 구조이다.

한옥의 구조는 생명의 원리처럼 공간의 생성을 스스로 감지하여 흐르는 듯 연속되는 모든 분할을 시시각각으로 주영역과 부영역으로 위치를 옮기며 역동적인 평형을 이루게 한다.3) 이는 변화하는 구조의 집이 가진 기(氣)의 순환에 관계하는 건강의 측면이다.

유동, 생성하는 공기의 순환은 기(氣)의 순환과 일맥상통하며, 집은 자연의 생명력을 내포하는 건강함을 가진다. 따라서 몸을 건강하게 하고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집은 디자인 기능의 효율성과 물리적 합리성의 측면을 넘어 인간의 정신에 관계되는 커뮤니케이션의 언어로서 사람을 활(浩)하게 한다. 활신(活身)이 몸과 정신이 분리된 개념으로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몸에만 좋은 집이어야 함에 국한되지 않는 마음의 측면과 연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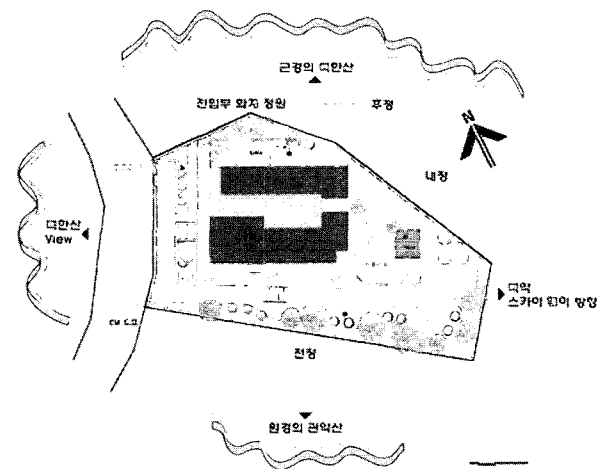
[그림 1] 디자인 개념도



### 3. 디자인 진행프로세스

#### 3-1 배치과정

축의 대상이 건물이라기보다 자연과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 중심주의가 아닌 인간과 자연을 동시에 포함하는 순환계의 입장에서 인간과 자연의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다. 또한 인간과 건축, 자연의 대립과 조화를 동시에 포함하는 가운데 설정되는 어떤 특권과 같은 위치를 제거하는 일이다. 중앙의 대지는 사면이 급경사의 낭떠러지로 둘러싸여 험한 느낌을 주었고 높은 지대에 위치함으로 인해 바람이 유난히 세게 불었다. 또한



[그림 2]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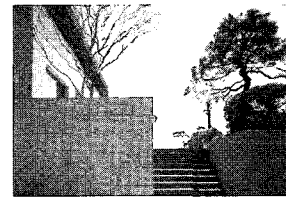
3) 「명목의 건축」 김개천 P 28~29 안그라픽스 2004

부지의 중앙에는 풍수적으로 손을 대면 화를 입을 수 있다는 거북바위가 있었다. 그러므로 중앙은 설계 처음부터 건축물 그 자체 보다 부지와 그 주변 조건이 가지는 지형지세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이었다.

서쪽의 진입부분은 원래 급경사의 낭떠러지로 이루어졌다. 때문에 거북바위의 서쪽으로 건물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서쪽 가파른 땅에 옹벽을 쌓아 건물을 최대한 원편의 도로 방향으로 위치시켜야 했다. 그렇게 해야 건물 주변 사방으로 각각의 특색 있는 정원을 가질 수가 있으면서 대지의 중앙에 있는 거북바위가 자연스럽게 동쪽으로 위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높고 가파른 대지를 1m 가량 파서 전체를 낮게 하였다. 전체 대지가 암반인 관계로 힘든 결정이었지만 그로 인하여 거북바위는 더욱 크게 드러나고 진입로의 경사도를 편안하게 만들었고 주변의 자연을 안정적으로 보이게 하였다.



[사진 2] 입구의 첫 번째 영역 때문에 들어선 첫 장면으로 건물은 없고 허허로운 길과 함께 멀리 있는 하늘만 보인다.



[사진 3] 입구의 두 번째 영역 계단을 올라서서 방향을 틀게되면 건물은 옆으로 비껴서서 잘 보이지 않고 계단위로 무한함만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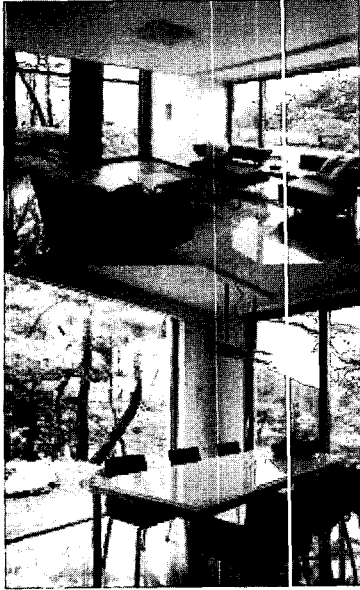
[사진 4] 입구의 세 번째 영역 멀리 있는 산이 정원으로 유입된 전정 부분

건물 주변으로는 각기 다른 정원이 위치한다. 남쪽의 전정과 동쪽의 내정 그리고 북쪽의 후정과 서쪽으로는 진입로 방향의 화계정원과 함께 길이 생기며 대지는 변화하는 시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작게는 대지의 중앙에 위치하고 넓게는 주변 자연의 중심에 있게하여 겹겹으로 중첩되게 한 무한대의 여러 정원을 갖추는 동시에 복잡적이며 단순한 전체가 된다. 겹겹이 중첩된 시공간은 다양하게 변화하고 밝아지며 기의 소통을 원활히 하여 인간을 건강하고 자유롭게 하는 역할로 기능한다.

이로써 중앙은 주변의 산을 정원으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각각의 외부정원을 상호소통 하게하여 경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경계를 통합하고 무화(無化)시켜서 자연계의 내외부에서 확장하고 변화, 순환시킨다.

#### 3-2 형태화 과정

중앙은 바위와 낭떠러지인 지형의 문제로 인해 건물의 면적은 사각형으로 최대한 축소하였다. 이것은 최소한의 건축으로 최대한의 대지를 확보하여 4계절의 변화와 함께 시가적 용도의 정원이 아닌 각각의 넓은 정원 속에서 도심 속의 전원생



[사진 5] 내부 거실과 식당 주변의 자연을 유입한 거실과 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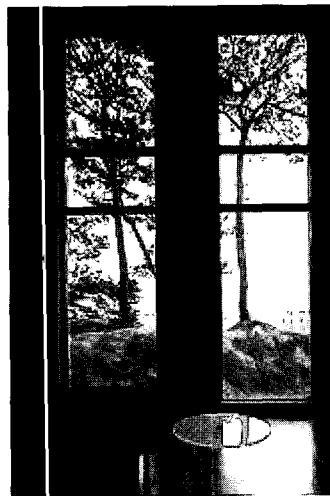
그러나 간결한 사각형의 좌우와 앞뒤로 공간을 분할되고 통하게 하여 막혀있는 듯 열려있는 구조로 기를 사방의 방향으로 상호 관입하여 무한 유통시키고자 하였다.

### 3-3 평면 계획

거실의 안방 그리고 식당과 자녀방의 배치 시 모든 방이 각기의 고요의 특별한 전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각각의 방이 자연의 중심에 있게 느껴지도록 배치 시키고 창을 내었다. 그것은 주역의 상괰(恒卦)에서 “때에 따라 변역한다(隨侍變易)는 것과 같이 사적인 영역을 우주적 영역으로 확장시켜 생활공간과 자연공간의 영역을 자유롭게 확장시키고 변역시키는 전이적 공간이 되게 할 수 있다.

거실과 다실 식당과 부엌 등의 공용공간에서는 각각의 고유 영역은 존재하면서도 경계가 사라져 경계가 없는 무경계의 평면을 설계하였다.

예를 들면 서재는 다실이면서 거실의 일부분이 되고, 또한 복도가 된다. 그래서 복도가 없어도 모든 장소는 길인 동시에 실이 되기도 한다. 이는 거주자가 자생적으로 운동을 하며 움직일 수 있게 하여 자유롭고, 다기능을 가진 가변적 구조를 만들기 위함이다. 그와 함께 경제적인 고려로 각 실의 면적을 크게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정하지 않는 자율적 경계의 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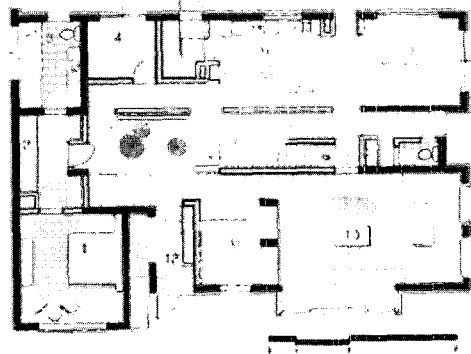


[사진 6] 중암 거실의 전경 마치 건축의 벽이 바위와 소나무인 것처럼 거실의 영역을 자연으로 확장시킨다.

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삶의 방식을 제안하기 위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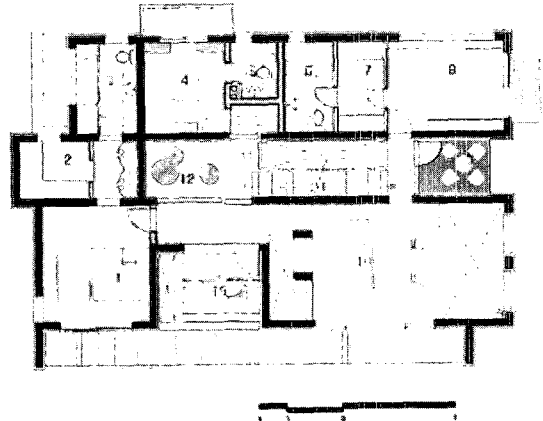
그와 함께 건물을 사각형의 직선으로 일관한 것은 사각형의 선은 형태 지향적 의도가 결여된 가장 형태적이지 않은 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각형 자체의 형식원리는 불필요한 것들이 요구되지 않는 구조의 자족성과 완전성, 그리고 대체적이지도 않고 방해할 아무것도 없는 간결한 통일성에 이끔린 것이다.

[그림 3]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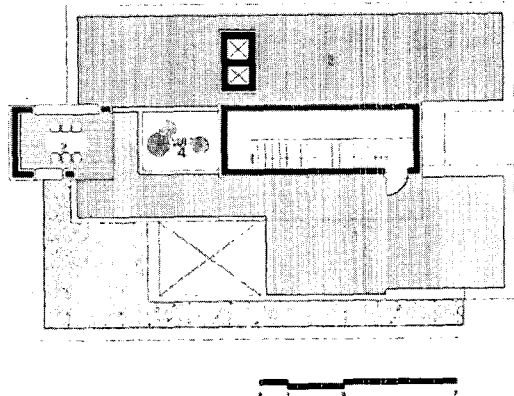
- |                      |                      |
|----------------------|----------------------|
| 1. Master Bed Room   | 7. Dining Room       |
| 2. Master Dress Room | 8. 계단실               |
| 3. Master Bath Room  | 9. 화장                |
| 4. Room              | 10. Living Room      |
| 5. Utility           | 11. Study & Tea Room |
| 6. Kitchen           | 12. Entrance         |

[그림 4]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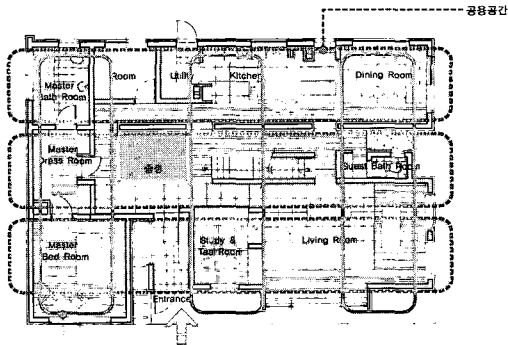
- |                   |                  |
|-------------------|------------------|
| 1. 아이방            | 7. 딸방 Dress Room |
| 2. 아이방 Dress Room | 8. 딸방            |
| 3. 아이방 Bath Room  | 9. Deck          |
| 4. 손님방            | 10. Family Room  |
| 5. 손님방 Bath Room  | 11. 중정           |
| 6. 딸방 Bath Room   | 12. 수공간          |

[그림 5] 지붕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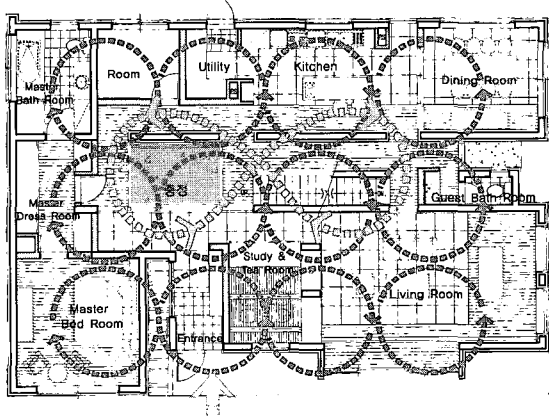
- |            |         |
|------------|---------|
| 1. 선텐 Deck | 3. 옥상데크 |
| 2. 옥상정자    | 4. 옥상정원 |

계를 위해 특별히 복도에 많은 면적을 할애하지 않고 거실과 계단실, 부엌 등에 복도처럼 느껴지는 경계가 없는 배치와 함께 순환적 동선배치를 하였다. 이로써 중앙의 내부에서 거주자는 이동 시 여러 가지의 동선을 택할 수 있다. 내부에서 내부로 이동하는데 퇴비우스의 띠와 같은 동선구조의 평면과 상하(上下)의 입체적인 구조를 하게 한다.



사적공간

[그림 6] 영역 설정도 실과 복도의 구별은 없고 한 영역이 전체의 영역으로 확장됨으로 공간의 기능이 사람의 행위를 제한하지 않으며 기가 흐르는데 방해하지 않는다.



[그림 7] 동선체계도 각각의 영역은 구획되지 않고 상대적이며 끊임 없이 변화하고 유동적인 체계를 가짐으로 공간에서 자유롭게 기를 생성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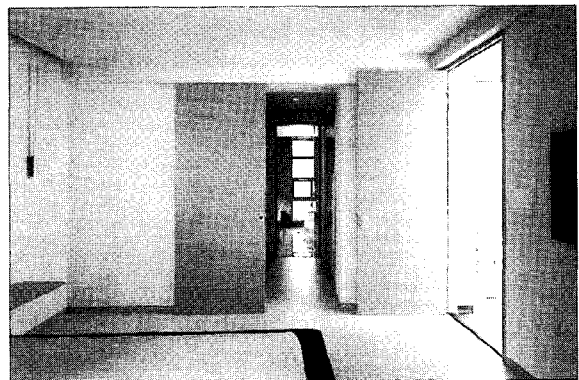


[사진 7] 서재 및 다실 서재는 다실이면서 거실의 일부가 되고, 또한 복도가 된다. 그래서 딱히 복도가 없으나 모든 장소는 길인 동시에 실이 되기도 하는 한정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각형의 단순함 속에서 복합적인 구조를 하게 하여 변화와 아무것도 없는 듯한 무위(無爲)를 동시적으로 획득하게 함으로써 고정되어 있지 않고 흐르게 하는 평면을 가지게 하였다. 그것은 변화 그 자체에 대한 관심 보다는 기(氣)의 흐름에 대한 고려 때문이었다. 집 전체에 기를 생생하게 소통하게 하여 몸을 건강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 3-4 재료와 색

「악기(樂記)」에서는 천(天) 혹은 천지(天地)는 음양의 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 음양의 기가 만물을 낳고 기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만물에 생명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를 생기(生氣)라고 한다 하였다<sup>4)</sup>. 자연적 소재는 자연에 내재된 음양의 기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재료를 선정함에 있어서 집의 공간에 생기를 부여할 수 있는 한지나 나무 등의 자연적인 소재를 선택하였다.



[사진 8] 침실 생기있는 자연의 소재 한지만을 사용하여 은근하고 드러나지 않는 벽과 천장

그러나 자연소재의 생기를 가진 재료의 구성과 조립을 통해 특정 있는 볼륨을 생성하기 보다는 복합적인 삶의 체계로서 내부와 외부가 통합된 전체이자 부분의 체계를 이루고자 하였다. 따라서 재료의 선택에 있어 객관적 데이터로서 제시할 수 있는 재료가기 보다는 스타일상의 특징적인 재료를 선택하고, 형상화되는 요소들로서 조합하는 재료의 선택적 접근 방법을 지양하고 삶의 행위를 포괄하여 담은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재료로 수렴되게 하였다. 즉 개개의 재료를 개체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전체적 통합을 지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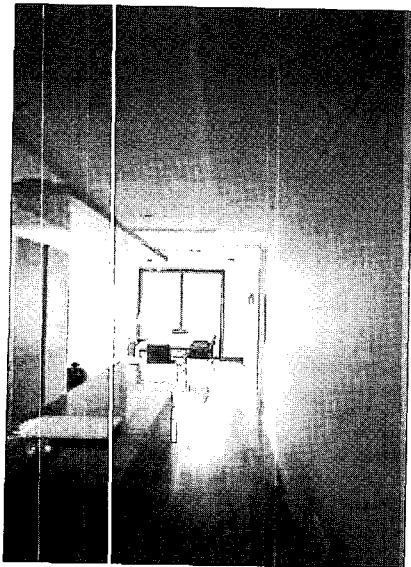
노자는 허의 형식은 모든 대상을 능히 가질 수 있다 하였다. 동시적으로 사라져 버리는 공(空)의 형식에 관한 소재로 회색의 돌을 택하여 내-외부를 통합하였고 회색의 한 가지 돌을 수평의 직사각형으로 재단하였다. 그리하여 재료가 갖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동시에 그 역할을 드러내지 않게 드러낸다. 이때, 재료는 전체 가운데서 역동적이며 정적인 무화(無化) 상태의 상보적 평형 상태를 이루는 건축을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무의 형식은 단순하나 자국이 있을때 기를 더욱 생성할 수 있다고 믿었다. 마치 좋은 수석이 세월의 흔적과 함께 기(氣)가 느껴지는 영묘함을 가져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처럼 존재하기 위해서는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도가철학과도 일치할 수 있다.

존재하지 않는 형식으로 존재하려한 생각은 평범한 회색을

4) 이상단 「악기에 있어서의 인간과 예술 그리고 자연의 이해」 P210 아세아문화사 1998

가진 돌을 선택하게 하였다. 평범한 회색 돌의 자연적 소재는 사각형의 형태를 더욱 가볍게 보이게 하며 돌의 물성을 떠나게끔 보이게 한다. 무표정한 직선과 열은 회색의 돌들은 따뜻함이 제거됐음에도 도도하면서도 순응적인 느낌으로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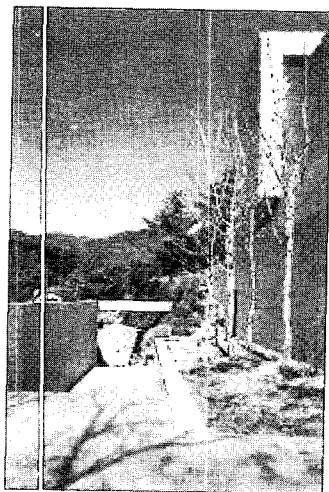
대로 부드러운 온기를 가진다. 집 전체의 벽과

[사진 9] 부엌 외부에서 사용한 회색의 돌이 내부로 깊게 유입되어 있고 한지로 마감된 천장으로 인해 형식은 내부로 침잠하고 단일한 부드러운 볼륨으로 느껴진다.

천장은 생기를 가진 자연 소재인 한지와 돌 그리고 목재로만 마감되었다. 이 같은 소재들은 빛을 반사하기보다는 내부로 흡수하여 스며 나오게 한다. 이러한 이유로 사용한 한지는 벽의 무게감을 줄이면서 가볍고 단일한 부드러운 볼륨처럼 느껴지게 하는 동시에 빛과 그림자의 변화를 은은하게 즐길 수 있으며 동시에 환경 친화적임으로 기를 생성하게 하는 생기(生氣)가 될 수 있었다.

#### 4. 디자인 결과

집은 통합화된 하나의 체계로서 삶을 영위하는 공간의 실현이다. 또한 스스로 생명력을 가진 기운생동(氣運生動)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을 때 거주자의 삶을 풍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정신과 물질에 내재하는 기(氣)의 순환이 고려된 집은 사람을 건강하고 편안하게 하는 집으로서 나아가 자연과 소통을 이루고 인간 삶을 복돋는 기록과 장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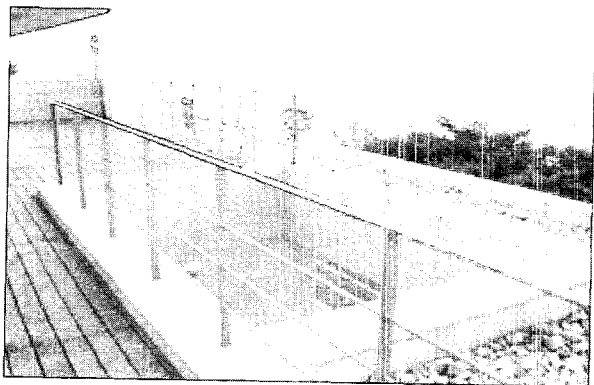


[사진 10] 중앙출구 멀리있는 산이 건축의 벽 그리고 자작나무와 함께 일체가 되어 산의 기가 건축과 정원으로 유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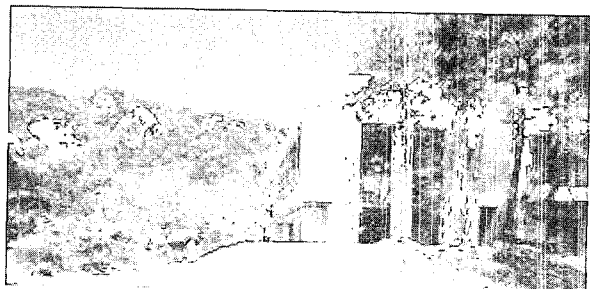
중앙의 설계 과정의 주요개념으로 고려한 기의 순환적 자율 체계를 위해서 주변의 환경과 집은 내·외부를 전체적으로 통합하고 스스로 유동할 수 있게 정신의 자유로움과 건강한 육체의 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생명력을 활(活)하게 하는 기(氣)의 순환을 위해 전체의 시점과 융합하며 2부영역과 부영역이 끝없이 변화

하며 항상 하는 구조로 평면과 단면계획을 하였다. 사각형의 단순함 속에서 복합적인 구조를 하게 하여 변화와 아무것도 없는 듯한 무위(無爲)를 동시적으로 획득하게 하였다. 이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흐르게 하는 평면으로 상(常)하고 장구(長久)한 효과를 내려하였다.

이와 같은 형식으로 설계된 집 중앙(中庵)은 인간의 삶을 자유롭고 건강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기의 흐름에 관한 자세한 관찰과 실험이 부족하다. 그러나 중앙은 또한 거주자의 실제 생활 연한에 따른 추가적 관찰과 꾸준한 실험기록 등의 과학적 통계 자료로 검증된 연구가 부족하나 변화하는 공간의 형식으로 자연과 소통하고 생명계의 전체 체계인 우주적 공간과 연결되게 하려 하였다. 그것은 변화인 동시에 불역(不易)이자 기(氣)로 순환한다.



[사진 11] 옥상 데크 옥상으로 자연이 유입되어 무경계의 데크가 된다.



[사진 12] 정원과 외관 멀리있는 산이 건축의 벽 그리고 자작나무와 함께 일체가 되어 산의 기가 건축과 정원으로 유입된다.

#### 건축 개요

- 위 치: 서울 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446-21번지
- 대지면적: 819.00㎡(247.75평)    • 건축면적: 189.45㎡(57.31평)
- 용 적 율: 36.09%    • 연 면 적: 328.08㎡(99.24평)
- 규 모: 지하 1층, 지상 2층    • 건 폐 율: 23.13%
- 지 상 층: 295.58㎡(89.41평)    •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 마 감 재: 외관-회색 돌 / 내부-한지, 목재, 돌

#### 참고문헌

1. 김개천, 「중앙(中庵)의 설계 단상」 2003
2. 김개천, 「명목의 건축」 안그라픽스, 2004
3. 李恒寧, 「동양의 기(氣) 사상」 통일 사상 제 8집, 1986
4. 안병주 외 「동양철학의 자연과 인간」 아세아 문화사, 1998
5. 조문환 「노장의 미학 사상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